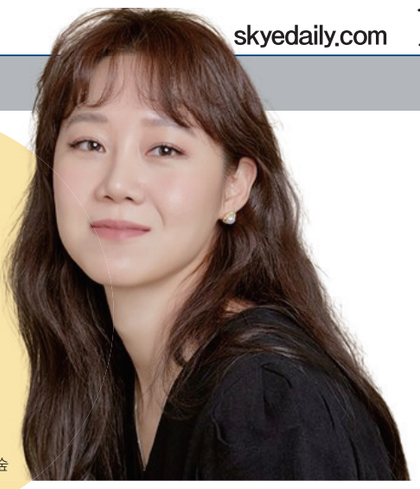
서울 중구 신당동

곰신 공효진 '별들에게 물어봐' 우주비행사로 복귀



공효진은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했고 2000년 MBC 시트콤 '가문의 영광'에서 본명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상두야 학교가자' '건빵선생과 별사탕' '고맙습니다' 등에서 정지훈(비)·공유·장혁 등 당대 스타들과 함께 연기하며 인상적인 호흡으로 호평받았다.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은 영화 '미쓰 홍당무'다. 극중 안면홍조증에 걸린 삽질 전문 양미숙 선생님 역을 개성 있게 연기해 대한민국 영화대상 여우주연상, 디렉터스컷 어워즈 올해의 여자배우상·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영화 '여름이야기' '선물' '킬러들의 수다' '화산고' '긴급조치 19호' '철없는 아내와 파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 '품행제로' '천군' 등과 드라마 '화려한 시절' '네 멋대로 해라' '눈사람' '상두야 학교가자''파스타'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괜찮아, 사랑이야' '프로듀사' '질투의 화신' '동백꽃 필 무렵' 등 스크린과 안방극장에 꾸준히 얼굴을 비쳤다.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의 히트로 '로코퀸'이라는 별칭을 얻은 공효진의 관련 대표작으로 2010년 방영된 MBC 드라마 '파스타'가 있다.

극중 서유경 역으로 상대역 배우 이선균과 찰떡궁합 연기를 선보여 연기대상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러블리한 매력을 뽐내 '공블리'라는 애칭도 얻었다.

2011년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선 비호감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연예인 구애정 역을 연기해 연기대상·여자최우수상·여자인기상 등을 수상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이어간 뒤 영화에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지선(엄지원 분)의 딸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보모 한매 역을 맡아 얼굴에 점을 찍거나 촌스러운 메이크업까지 소화하는 변신을 감행하며 놀라운 연기로 황금촬영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병헌과 부부로 출연한 영화 '싱글라이더'에서는 남편을 떠나 호주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부인 이수진 역을 연기했고 '도어락'에선 스릴러 연기에 도전했다. 또 액션영화 '뺑반'에서는 여성 경찰 연기로 다양한 역할을 오갔다.

2019년 로맨스 장르의 KBS2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 역을 맡아 대체할 배우가 없다는 극찬과 함께 시청자의 폭발적인 사랑을 구가했다. 동백은 공효진의 아우라가 특유의 연기색과 어우러져 특별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동백이 차츰 성장해가는 모습뿐 아니라 용식(강하늘 분)과의 풋풋한 사랑부터 필구(김강훈 분)와의 가슴 아린 모성애까지 섬세하게 그려내 다져온 연기 내공을 아낌없이 발산했다. 이를 통해 데뷔 20주년 생애 첫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맛봤다.

연기와는 별개로 지난해 10월 가수 케빈오와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 3일 방송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공효진은 지난해 12월 군대에 간 케빈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또 휴대폰에 남편의 애칭을 '마이 엔젤'이라고 저장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한 가정을 꾸린 공효진이 올해 공개를 앞둔 제작비 500억 원 대작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에 출연한다.

'별들에게 물어봐'는 국내 최초로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SF 로맨스 드라마로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캡틴 이브 킴 역을 맡아 산부인과 의사 공룡(이민호 분)과 호흡한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인 이브 킴을 어떻게 표현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오랜만의 복귀 소식에 그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공효진은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N빌라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소유 호실은 전용면적 147.87㎡(약 44.73평) 규모로 2016년 7월 1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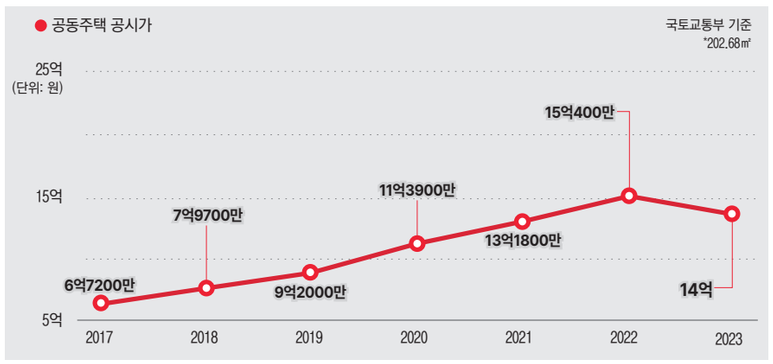
올해 초 전용면적 150.41㎡(약 45.49평)가 36억 원에 매물이 나와 공효진 호실은 30억 원 초중반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총 18가구로 구성된 이 빌라는 근처의 남산을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숲세권을 자랑한다. 또 국립극장부터 블루스퀘어 등 문화시설과도 가까워 문화·여가 생활도 용이하다. 지대가 높아 각 호실에서 남산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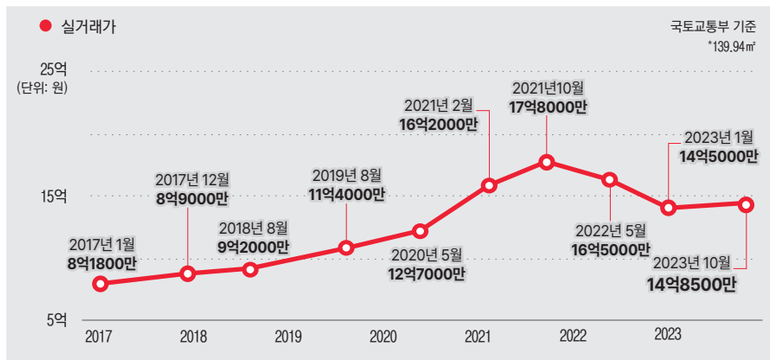
6호선 버티고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서울 도심과 강남까지 차로 10분 이내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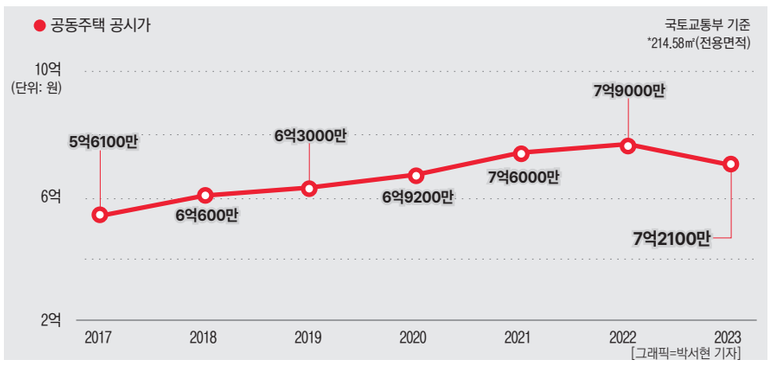
남산포레스트하우스(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서울 중구 신당동)



그랜드빌(서울 중구 신당동)



[그래픽=박서현 기자]

오종훈 현)카이스트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겸직교수

오종훈 카이스트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겸직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물리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교 교환교수·포항공과대 물리학과 조교수·부교수 등을 지냈다. 1986년 항공대 교수로 부임한 뒤 2000년 세계 최초로 오디오용 완전 디지털증폭기를 위한 집적회로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한 기업 펄서스테크놀로지를 설립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미국 팔로알토오디오디자인 LLC·플랫폼팩토리 등을 창업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아시아 첫 공식 AES 국제학회를 유치 등 활발한 학술·학회활동을 선도한 공로로 2009년 국제오디오공학회 AES 이사회상을 받았다. AES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오디오공학 전문학회로 오디오 압축규격이나 방송, 녹음에 사용되는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끼치는 국제학회다.

정창영 전)아라드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창영 전 아라드네트웍스 사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대학원 법률학 석사·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 과정을 수료했다.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강남구청 과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관·국가전략사업평가단 제1과 과장·기획관리실 대외협력심의관 부이사관·산업환경감사국 국장·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이후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설 개량과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했다. 2020년 1월 도시재생안전협회 고문으로 추대된 그는 취임사에서 "향후 도시재생사업은 ICT가 반영된 스마트시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Safety)의 개념을 포함한 협회의 창립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협회 사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대표를 지냈던 아라드네트웍스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스마트홈 해킹 방지 솔루션 '아라드 홈' 등 다양한 보안솔루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유원상 현)유유제약 대표이사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유승필 유유제약 회장의 장남으로 오너 3세다. 미국 트리니티대학교 경제학과와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뉴욕 메릴린치증권과 노바티스를 거쳐 2008년 상무로 유유제약에 입사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시도해 주목받았다. 멍 치료제 시장을 발굴했고 휴대용 비강 세정제 '피지오머 펌프 미스트'를 출시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유유제약은 먹는 치질약 '유유베노스민정'으로 치질약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2005년부터 국가유공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 소재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유유제약은 기업PR(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 유 대표가 직접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노량진6구역 하반기 착공 1499가구 대단지로… 1000명 수용 공연장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A·B로 공사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A공구는 GS건설이, B공구는 SK에코플랜트가 맡아 실시한다.

노량진6구역(노량진동 302-160번지 일대) 내 해체 예정 건축물은 총 320동이다. 7만㎡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모든 건축물이 5층 이하 단독·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철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먼저 B공구는 작년 11월 해체공사를 시작해 약 70% 진행을 완료했으며 A공구는 이달 착공해 올해 상반기에 모든 해체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량진6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노후화된 저층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복합문화시설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28층·14개동·1499가구 규모의 명품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작구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예상조감도. 서울시 동작구

구역 내 동작구 최초로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만3000㎡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서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 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구는 민선8기 들어 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고품격 주거지를 조성하는 '동작구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대방삼거리 북측(대방동 393-66)과 남성역 일대(사당로17길 61)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노량진6구역 해체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작의 문화·예술 거점이 될 대규모 공연장을 포함해 주민들이 자부심 느끼는 명품단지로 재탄생 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캠코 1437억 원 압류재산 1373건 공매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43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3건을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귀금속·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26건·동산 147건이 매각되며 그중 임야 등 토지가 7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6건을 포함해 총 177건이 공매되고 자동차·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18건이나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입찰 결과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 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를 온비드를 통해 감정가의 90%에 매각하고 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